별첨1

국민주권 정부 1주년
주요성과 및 향후 계획
- 산업·통상·자원 분야 -

2026. 5. 27

산업통상부

목 차

1. 한-미 관세협상 타결 ····· 1

2. 민관 협력을 통한 석유화학산업 구조개편 ····· 3

3. 중동발 에너지·자원 위기 총력 대응으로 실물경제 충격 최소화 ···5

4. 수출 사상 최대 기록, 외투도 역대 최대 유치 ····· 7

5. 제조AI 대전환(M.AX)을 위한 강력한 추진체계 구축 ····· 10

1 한-미 관세협상 타결

< 그간의 성과 >

❶ 미측 관세 인하를 통해 우리 경제 및 대미 수출 불확실성 완화

- (상호관세*) 당초 對韓 25% 상호관세 발표 → 15%로 인하
  * 美 대법원 위법판결('26.2.20) 이후 무역법 122조 하에서 10% 관세율 적용중
- (자동차·부품) 당초 25% 품목관세 부과 → 15%로 인하
- (의약품) 향후 관세 도입 시 최대 15% 확보 → 미측 특허의약품 관세 발표('26.4.2) 결과 한국 등 합의국은 15% 적용(미합의국 100%)
- (반도체) 향후 관세 도입 시 대만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 확보
- (여타품목) 목재 제품 최대 15%, 특정 항공기·부품에 대한 상호관세 및 철강·알루미늄·구리 품목관세 면제

❷ 「한미 전략적 투자 MOU」를 통한 전략산업 대미투자 추진기반 마련

- (전략분야 협력) 조선, 에너지, 반도체, 의약품, 핵심광물, 인공지능, 양자컴퓨팅 등 분야에 걸쳐 양국 경제·안보 이익 증진을 위한 협력
- (기업진출 확대) 토지·전력·구매계약·규제절차 등 미측 유·무형 지원 확보, 한국 벤더·공급업체 및 프로젝트매니저를 우선적으로 선정
- (안전장치 확보) 투자 프로젝트의 상업적 합리성 조건 명시, 연간 투자금 납입한도 200억불 상한 설정 등 MOU상 안전장치 마련

1 추진배경

○ 美 행정부는 '25.4월 각국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 방침 발표(韓 25%), 자동차 등 주요 품목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부과도 병행

- 미측 고율관세 현실화 시 우리 경제·산업에 대한 피해 발생 우려 → '25.6월 정부출범 직후 대미 관세협상 본격 추진

2 추진실적 및 성과

○ '25.7.31일(한국시간) 한미간 큰 틀의 합의 타결 → 후속 협상을 거쳐 '25.10.29일 APEC 정상회담 계기 한미 관세협상 최종 타결

- 이후 '25.11.14일 한-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(MOU) 체결과 함께 양국 공동설명자료(JFS)를 통해 구체 합의내용 발표

관세 유형	주요 합의사항
상호관세	25% → 15%
자동차·부품 관세	25% → 15%
반도체 관세	(향후 관세조치 도입시) 대만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
의약품 관세	(향후 관세조치 도입시) 최대 15%
항공기·부품 관세	철강·알루미늄·구리 232조 관세 및 상호관세 면제
목재 관세	원목 등 : 10% 가구 : 25% → 최대 15%

○ 합의사항 이행 및 한미간 지속 소통을 통해 대미 통상환경 안정적 관리

- 대미 전략적 투자 추진을 위해 「대미투자특별법」 제정하고('26.3.17), 법 시행 전 투자프로젝트 예비검토를 위한 임시 추진체계 구축·운영
- 고위급 방미 등 계기 관세·대미투자 및 비관세 통상현안 관련 대미 아웃리치 전개하여 상호간 소통 제고 및 협력 지속

3 향후계획

○ 상업적 합리성 있고 우리 기업의 대미 진출 가능한 프로젝트 추진

- 「대미투자특별법」 시행('26.6.18)에 맞추어 시행령 적기 제정·운용하고, 투자 프로젝트 관련 미측과의 논의·협력도 지속 진행

○ 미측 후속관세(무역법 301조 등) 관련 동향 주시 및 대미 협의를 통해 기존 한미 관세합의로 확보된 양국간 이익균형 유지

2 민관 협력을 통한 석유화학산업 구조개편

< 그간의 성과 >

❶ 위기 확산前 선제적 구조개편을 최초로 추진

- 과거 위기발생後 추진했던 부실기업 "사후적 구조조정"과 다르게 위기상황 이전에 산업정책 차원의 "선제적 구조개편"을 최초로 추진

  * **(25.8)** 석유화학산업 구조개편 로드맵 발표 및 全산업차원의 자율협약식 체결

- 업계·정부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통해 공급과잉 생산설비의 합리적 조정 및 고부가 사업구조 전환을 위해 프로젝트별 사업재편안 마련

  * **(25.12)** 12개 석유화학기업간 5개 프로젝트 사업재편계획서 초안 제출 완료

❷ 1호 프로젝트(대산 HD현대케미칼-롯데케미칼) 사업재편계획 승인

- 대산 HD현대케미칼-롯데케미칼간 1호 사업재편계획을 승인(26.2) ⇨ 설비합리화(110만톤) 및 고부가전환을 통한 시너지효과 창출기반 마련

- 대산 1호 사업재편계획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금융·세제·규제합리화·원가 등 2.1조원 이상의 맞춤형 지원패키지*를 제공

  * **(금융)** 설비통합 및 고부가전환을 위한 신규자금(최대 1조원) 및 영구채 전환(최대 1조원)
  (세제) 지방세(취득세·등록면허세) 및 법인세 부담 완화 등
  (규제) 기업결합심사기간 단축, 인·허가 승계 및 절차 간소화 등
  (원가) 분산특구제도를 활용한 전기요금 부담완화, 관세부담 완화 등

❸ 2호 프로젝트(여수 YNCC-롯데케미칼) 사업재편계획서 최종안 제출

- 여수 YNCC-롯데케미칼간 2호 사업재편계획 최종안 제출(26.3)

- 현재 기업이 제출한 사업재편계획 심의중이며, 사업재편 승인시 맞춤형 지원패키지 제공 예정

1 추진배경

o 주요국 생산설비 증설에 따른 글로벌 공급과잉으로 석유화학산업은 구조적 위기에 직면 ⇨ 범용제품 + 對中 수출중심의 성장전략 지속 불가

  * **(생산 대비 수출 비중)** 56%, **(범용 비중)** 70%, **(對中 수출 비중)** 177억불(36.9%)
  (中 PE 자급율) ('18) 64→('24) 84%, / **(中 PP 자급율)** ('18) 93→('24) 128%

2 추진실적 및 성과

o 新정부 출범 이후 정부와 업계가 함께 로드맵*을 마련하고 모든 NCC 석유화학社가 구조개편 참여 자율협약을 체결하며 논의 본격화(25.8)

  * **석화 구조개편 로드맵** : NCC 석화社 통폐합을 통한 설비감축, 자구노력 및 고부가화 방안 등이 포함된 사업재편안 제출 → 프로젝트별 사업재편계획 승인 및 이행

o 3개 산단의 12개 석유화학社가 5개 사업재편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사업재편계획서 초안을 제출(25.12)

o 대산 HD현대케미칼-롯데케미칼간 1호 사업재편계획 승인(26.2)

- 110만톤 규모의 설비합리화 및 고부가전환을 통한 시너지효과 창출 및 산업경쟁력 제고기반 마련

- 대산 1호 사업재편계획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금융·세제·규제합리화·원가 등 2.1조원 이상의 맞춤형 지원패키지를 제공

o 여수 YNCC-롯데케미칼간 2호 사업재편계획 최종안 제출(26.3) 및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 심의 중(26.5~)

o 「석유화학특별법('25.12)」 및 시행령 제정('26.4)을 통해 사업재편·고부가전환을 위한 R&D·세제·재정 지원, 공정거래법 특례 등 제도적 기반 마련

3 향후계획

o 2호 사업재편계획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여 승인여부 결정 및 사업재편계획 승인시 금융·세제·규제완화 등 맞춤형 지원패키지 제공

o 나머지 3개 프로젝트도 기업간 협의를 자율적으로 진행하여 사업재편계획서 최종안 제출 및 승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독려 예정

3 중동발 에너지·자원 위기 총력 대응으로 실물경제 충격 최소화

< 그간의 성과 >

❶ 민관 합동으로 5월은 예년 대비 원유 90% 확보 등 수급 안정화

- 전략경제협력특사단 파견으로 대체 물량 확보 : 약 3억 배럴

  * (1차) UAE 2,400만 배럴, (2차) 카자흐스탄·사우디·오만 2억 7,300만 배럴

- 원유 도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시적 수급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원유 선적 확인 후 비축유를 일시 대여해주는 SWAP 제도 시행

  * 민간 원유 선적 확인 → 국내 비축유 제공 → 민간 선적분 국내 반입 시 상환(SWAP)

- 미주, 아프리카 등 비중동 지역産 원유 도입 물류비 차액지원 확대

  * 석유수입부과금 환급 : ❶요건 완화(물량·기간·횟수 등), ❷전액 환급 추진(기존 일부25% 전후 지원)

  ** 원유 도입선 다변화를 통해 중동산 원유 도입 비중 70%→50% 수준까지 감소

❷ 나프타 공급 확대로 필수재 생산 안정화

- 나프타 수입단가 차액 지원(추경 6,744억원), 수입대금 저리융자 등을 통해 5월 나프타 도입은 전년 대비 90% 수준 확보

- 석화사 가동률(NCC가동률 약 3末55→5末75%) 상향 통해 석화제품 생산 확대

  ※ 여천NCC 보도자료(4.27, "정부의 수급안정화 대책에 부응...공장 가동률 65%로 상향")

❸ 최고가격제로 민생 물가 안정화

- 최고가격제는 물가 안정에 기여하며 '민생 방파제' 역할 수행

  * 최고가격제로 3월 △**0.6%p**, 4월 △**1.2%p** 수준 물가 완화 추정(재경부)

- 범부처 합동점검단 활동으로 가짜석유, 담합, 사재기 등 시장질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제재 강화

- 가격 안정 기여도가 높아 시민단체가 선정한 '착한 주유소'를 국민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오피넷, 티맵 등과 연계하여 홍보

1 추진 배경

○ 중동전쟁 발발로 원유, 나프타 등 주요 자원 수급 차질 우려와 국제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민생과 실물경제 전반에 영향 발생

○ 민관이 함께 자원 수급 관리 및 가격 안정을 위한 위기대응체계 가동

2 추진실적 및 성과

○ 전략경제협력특사단* 활동, 비축유 SWAP 제도 도입, 원유물류비 차액, 나프타도입비 차액 지원으로 5월 예년 대비 원유·나프타 90% 수준 확보

* 특사단 확보 물량 : 원유 약 3억배럴(UAE·카자·오만·사우디), 나프타 210만톤(오만·사우디)

○ 나프타수출물량 내수 전환, 필수품목(보건의료·민생품목·핵심산업) 원료 우선 공급, 매점매석 금지 등으로 주요 산업의 공급망 안정화

< 석화제품 파생품목 주요 조치 실적 >

구분	조치 실적
보건의료	- 약포지 제조업제 현장 점검4.20, 물약통 제조업체 공급4.15~16, - 주요 석화업체에 주사기·주사침 공급 협조 요청4.21 및 정상 공급계획 확인5.7
핵심산업	- 조선-석화업계 에틸렌가스 5월공급계획 협의 完5.4, 바이오업계 탄산 우선배정4.17
민생품목	- 농업용 필름 핵심업체 PE 우선 공급5.11, 제4차플라스틱 포장재 TF 개최5.11

○ 최고가격제(3.13~)는 석유제품 가격의 안정세* 견인, 취약계층 보호

* 戰前 대비 가격 상승률: (휘) 韓 19%, 美 55%, 英 23%, (경) 韓 26%, 美 52%, 英 38%
최고가격제로 3월 △**0.6%p**, 4월 △**1.2%p** 수준 물가 완화 추정 (재경부)

- '착한주유소'* 적극 홍보, 시장 교란 불법행위**·가짜뉴스 엄정 대응

* 착한주유소 5차례 총 368개 선정 ** 범부처 합동점검단(5.25 기준) : 총 137건 적발

○ 원유·천연가스 자원안보 경보체계 가동으로 수요관리 체계 돌입

* 자원안보 위기경보 : (원유) 3.5관심 → 3.18주의 → 4.2경계, (천연가스) 3.5관심 → 4.2주의

3 향후 계획

○ 나프타·석유수급·가격 변동성 심화 대비하여 위기대응 체계 지속 가동

○ 주요 자원 도입선 다변화 지원과 함께 중동산 外 원유를 처리할 수 있도록 설비 전환·개조 유도 및 기술개발 지원

- 원유 비축시설 증설 및 국제공동비축 협력 확대

4 수출 사상 최대 기록, 외투도 역대 최대 유치

< 그간의 성과 >

❶ 불확실성에도 '25년 최대 수출 실적 → '26년 수출 5강 가시화

ㅇ '25년 사상 최대 수출 7,093억불(+3.8%) 달성, 774억불 흑자

- 전 세계 6번째로 수출 7,000억불 돌파하며 수출 가속 성장 중

* 수출 증가율(전년동기比) : '24.6~25.4월(+4.1%) → '25.6~26.4월(+18.8%)

ㅇ 중동 전쟁 등에도 '26.4월까지 역대 최대 3,065억불(+40.9%) 기록

- '26.2월까지 일본, 이탈리아를 제치고 글로벌 수출 5위권 진입

* 한국 수출순위(WTO) : ('25년) 7위 → ('26.1~2월) 5위

❷ 수출 시장, 품목, 저변 확대를 통한 견고한 수출 구조 마련

ㅇ 美·中 의존↓(38.1→35.8%), 아세안·중남미·CIS 다변화(22.6→23.6%)('24→'25)

ㅇ 반도체(+148%) 외에 뷰티(+24.1%), 패션(+13.7%), 푸드(+7.8%) 등 K-소비재 수출 약진('26.1~4월 수출 증가율)

ㅇ 대-중소 협력 상생 무역금융(수출공급망보증) 2.4조원 조성, 시중은행 통한 수출기업 우대금융 15조원 공급, K-수출스타 500 출범

❸ '25년 외국인투자 유치 역대 최대 360.5억불 달성

ㅇ '25.下 첨단산업 투자 대폭 유입되며 반등 → 사상 최고 기록

* ('25.上 누적) 131억 달러(△14.6%) → ('25.下 누적) 360.5억 달러(+4.3%)

- APEC 정상회의 계기, 글로벌 7개社 90억불 투자계획 발표

- 그린필드* 역대 1위(285.9억불, +7.1%), 첨단산업 핵심 소재 투자 증가

* 부지 확보 후 공장 설치하는 투자 방식으로 지역경제 활성화, 고용창출 효과 多

1 추진배경

ㅇ 대외 불확실성에도 견고한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총력 대응

ㅇ 공급망 안정성과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외투 유치 역량 집중

2 추진실적 및 성과

ㅇ (수출 실적) 美 관세 지원대책*('25.9), 범부처 수출확대방안**('26.2) 발표

* 관세피해기업 자금지원(13.6조원) 신시장 마케팅(3천개社)·바이어(2천개社) 유치 지원 등

** 8대 전략 품목 지원(소비재 등), 수출 중추기업 육성(K-수출스타 500) 등

- 중동 전쟁 피해 최소화를 위한 수출 지원체계 신속 구축('26.3)

* 수출기업 애로센터(코트라·무협·중기부), 긴급바우처(335억원), 무역보험(6.9조원) 등

⇒ (성과) '25년 사상 최대 수출 실적 7,093억불(+3.8%) 달성

- 美·中 의존↓(38.1→35.8%), 아세안·중남미·CIS 다변화(22.6→23.6%)('24→'25)

- 중동 전쟁 등에도 '26.1~4월까지 역대 최대 3,065억불(+40.9%) 기록

* 한국 수출순위(WTO) : ('25년) 7위 → ('26.1~2월) 5위

ㅇ (저변 확대) 소비재 수출확대방안*('25.12), 무역금융 혁신방안**('26.2) 발표

* 한류박람회 등 마케팅 지원, 소비재 인증·물류 전담 지원 강화, 역직구 활성화 등

** 중소·중견 무역금융 확대(~'30, 187조원), 방산·AI 등 전략·첨단산업 수주지원 강화 등

- 수출 다변화 동향 반영, 15대 주력 수출 품목을 20대로 확대('26.5)

* 전기기기, 비철금속, 농수산식품, 화장품, 생활용품 등 5개 신규 품목 추가

⇒ (성과) 반도체(+148%) 외에 뷰티(+24.1%), 패션(+13.7%), 푸드(+7.8%) 등 K-소비재 수출 약진('26.1~4월 수출 증가율)

- 대-중소 협력 상생 무역금융(수출공급망보증) 2.4조원* 조성, 시중은행 통한 수출기업 우대금융 15조원 공급

* ('25) 8월자동차(1차), 9월자동차(2차), 11월철강, ('26) 1월조선(1차), 4월소비재, 5월조선(2차)

○ (외투 유치) APEC 정상회의 계기 글로벌 7개社 90억불 투자계획 발표*, 역대 최대 규모 Invest Korea Summit 개최 등 적극적 활동('25.10)

* 아마존웹서비스(AI데이터센터), 르노(미래차), 앰코테크놀러지(반도체 후공정) 등

⇒ (성과) 역대 최대 360.5억불(+4.3%) 외국인투자 유치 달성

- '25.上 실적 부진을 넘어, '25.下 첨단산업 투자 대폭 유입

* ('25.上 누적) 131억 달러(△14.6%) → ('25.下 누적) 360.5억 달러(+4.3%)

- 그린필드* 역대 1위(285.9억불, +7.1%), 첨단산업 핵심 소재 투자** 증가

* 부지 확보 후 공장·사업장을 설치하는 투자 방식, 지역경제 활성화, 고용창출 효과 多

** 증가업종 : 화공(58.1억불, +99.5%), 금속(27.4억불, +272.2%) 등

3 향후계획

○ 대외 무역환경 변화 下 수출기업 지원 강화 위한 법령 개정(연내)

* 무역보험법(보증·보험 연계 투자, RG 별도계정 마련) 등

○ '모두의 수출' 위한 상생 금융 확산(방산·반도체 등) : 10조원 조성(연내)

○ 유치 성과의 지역 확산 위한 非수도권 중심 외투 인센티브 강화

* V 주재 외투간담회 계기 '청년도약, 지역성장 중심 외투 지원 정책방향' 발표('26.1)

- 非수도권 현금지원 강화, 지방비 현물매칭 허용 위한 법령 개정 등(연내)

5 제조AI 대전환(M.AX)을 위한 강력한 추진체계 구축

※ M.AX = Manufacturing AI Transformation

< 그간의 성과 >

❶ 1,500여개 기업, 기관 등이 참여하는 M.AX 얼라이언스 출범

- 제조·AI기업, 학계, 연구기관의 역량을 한 데 모아 제조 AI 모델, 혁신제품 개발 등을 공동 추진

❷ 공정AX를 통한 생산성의 획기적 개선

- 반도체·조선·이차전지 등 12대 주요 업종을 대상으로 AI 팩토리* 보급 확대('25년 102개 → '26년 200개+, 누적기준)

업종	주요내용
반도체	▸ 반도체 PCB 공정 (도금, 회로식각 등)에 AI 도입
이차전지	▸ 배터리 전극소재 품질예측, 자율제조 시스템
조선	▸ 선박 조립·용접 공정에 AI 기반 협동로봇 도입
기계	▸ AI 기반 농기계 무인검사 시스템 구축

⇒ 생산성 향상(30%↑), 결함감소(50%↓), 비용절감(20%↓) 등 달성 기대

❸ 대규모 실증 · R&D를 통한 AX제품 개발 추진

- 다양한 산업·제조현장 실증*과 세계 최고수준의 핵심부품(액추에이터·로봇손 등) 개발을 통한 산업 특화 휴머노이드 개발

* (예시) 조선 작업장 화재감시·진화, 화학 유독가스 배출환경 내 밸브조작, 물류 제품포장 병원 간호사 보조로봇(진료차트 제공 등), 식품 라면소스 제조, 특수학교 장애아동 재활지원

- 車·로봇·가전 등 수요기업과 연계한 온디바이스 AI반도체 개발 추진

* K-온디바이스 AI 반도체 개발사업('26~'30년, 적검 진행 중)

❹ 산단을 거점으로 지역기업 · 학계 등이 중심이 된 지역AX 확산

- 10대 산단을 거점으로 지역대학·기업 중심 지역AX 협력모델 구축

* 창원(기계·방산), 울산미포(석유화학), 대불(조선), 여수(석유화학), 강원후평(바이오), 명지녹산(조선기자재), 반월시화(뿌리·소재부품), 광주(미래차), 천안(디스플레이), 군산(조선기자재)

1 추진배경

○ 생산인구 감소[1]·생산성 저하[2]·성장률 하락[3] 등 제조업 위기 지속

1) 생산인구(만명) : '19년 3,738 → '25년 3,591 → '30년 3,417
2) 시간당 노동 생산성 : 獨 $88.0, 美 $87.6, 韓 $49.4
3) 제조업 부가가치 증가율 : ('90~'00) 9.4% → ('00~'10) 6.3% → ('10~'20) 2.4%

○ 세계적 제조기업과 양질 데이터를 바탕으로 민·관·연 협력 생태계 강화를 통해 2030년 제조AX 최강국으로 도약 추진

2 금년 추진실적 및 성과

❶ 제조AI 대전환을 위한 강력한 추진체계, M.AX 얼라이언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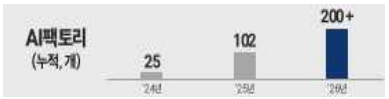
- 제조·AI기업, 학계, 연구기관 등 산·학·연 모두의 AX 역량을 모은, 10개 분과로 구성된, M.AX 얼라이언스 출범

- 국민성장펀드 연계 강화, 'M.AX 혁신펀드' 조성 등을 통해 여력이 부족한 우리 기업의 M.AX 프로젝트 자금지원

- 산단AX 분과 신설('26.2월)로 'M.AX 베스트 일레븐' 구성, 참여기업·기관도 1,500여개로 얼라이언스 출범 대비 50% 증가

❷ 12대 업종의 주요 공정AX로 제조 생산성·경쟁력의 획기적 개선

- 제조공정에 AI를 접목,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는 AI 팩토리, 금년까지 누적 200개 이상 보급 추진



- 반도체·이차전지·조선 등 업종별 우수사례 중심 벤치마크 모델 창출

업종	주요내용	예상성과
반도체	▸ 반도체 PCB 공정 (도금, 회로식각 등)에 AI 도입	품질검사시간 90%↓
이차전지	▸ 배터리 전극소재 품질예측, 자율제조 시스템	품질예측 정확도 87%
조선	▸ 선박 조립·용접 공정에 AI 기반 협동로봇 도입	작업시간 12.5%↓, 안전 강화
기계	▸ AI 기반 농기계 무인검사 시스템 구축	검사속도 11%↑

- 앵커기업을 중심으로 공급망 내 협력기업들의 공정AX를 추진·지원하는 상생형 AI 팩토리 사업 '26년 20개 이상 확대

* ('25년) 2개 프로젝트, 6개 기업 → ('26년 계획) 5개 프로젝트, 20개 기업 이상
↳ (사례) 협력업체 가전부품 판금공정(프레스 등)에 AI 제어시스템 도입

❸ 제품AX를 통한 자율주행차·휴머노이드 등 혁신제품 개발

- 자율주행차 등 혁신제품 개발을 위해 '온디바이스 AI 반도체 개발사업' 등을 포함한 대규모 R&D 및 실증사업 본격 착수

구 분	주요 내용
자율주행차	▸ E2E(end-to-end) 자율주행 기술개발('25~'28년, 190억원) ▸ 자율주행 활용을 위한 SDV 양산 플랫폼 개발('25~'29년, 270억원)
자율운항선박	▸ AI완전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('26~'32년, 잠정 6천억원, 예타면제) ▸ 자율운항전박 AI 학습용 공공데이터셋 구축·실증
AI반도체	▸ 자율차 등 연계한 K-온디바이스 AI반도체 ('26~'30년, 예타면제)

- 휴머노이드 산업현장 실증*, 세계적 수준의 핵심부품 개발 등을 통한 산업 특화 휴머노이드 개발

* (예시) 조선 작업장 화재감시·진화, 화학 유독가스 배출환경 내 밸브조작, 물류 제품포장 병원 간호사 보조로봇(진료차트 제공 등), 식품 라면소스 제조, 특수학교 장애아동 재활지원

❹ 산업단지를 거점으로 지역기업·대학 중심의 AX 협력모델 구축

- 산단AX 분과와 함께 창원·광주 등 10개 AX 실증산단 중심 MINI* 얼라이언스 출범

- 산단 고도화(M.AX 클러스터)와 인프라 확충, 산학연 협업 생태계 구축 등 「산단 AX 추진전략」 발표

* **M**.AX **I**nnovation **N**etwork in **I**ndustrial complexes

3 향후계획

○ M.AX 확산을 위한 체계적 지원방안을 담은 「가칭M.AX 특별법」 제정

○ 제조업 전반과 휴머노이드 등 핵심산업 AI 혁신을 위한 「제조 AI 2030 전략」, 「휴머노이드 생태계 확산 전략」 등 발표

○ 데이터 라이브러리 등 M.AX 대규모 핵심사업('27년) 기획·추진

- 보안이 유지된 환경에서 제조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제조AX 데이터 라이브러리, 이와 연계한 제조 AI 모델 개발 등 추진

- 숙련공 은퇴에 따른 암묵지 단절을 예방하고 암묵지를 활용한 AI 모델·로봇 개발 등을 지원하는 '제조 암묵지 AI솔루션 개발사업' 추진

○ 산단기업·지역대학 등과 연계한 지역AX 인력양성 및 인프라 구축

* (인력양성) 제조현장에서 필요한 도메인·AI 전문성을 모두 갖춘 지역인재 양성
(인프라 구축) 산단 내 소규모 AI 데이터센터 구축, 데모 다크팩토리 시설 구축

○ AI로 소프트웨어·하드웨어 전반을 연계해 스스로 판단·작동하는 공장인 '풀스택 AI팩토리' 개발 및 수출 기반 마련

○ 현장에서 위험·고난도 작업을 수행하는 휴머노이드 양산체계 구축 지원